

탄자니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947천 km ²	GDP	238억 달러
인구	45.04 백만 명	1인당 GDP	528달러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Tanzania Shilling (TSh)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1,409.30

- 아프리카 동남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탄자니아는 한반도의 4.3배에 달하는 국토와 4,504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모잠비크 등과 접경하고 있음.
- 금 4,500만 온스, 다이아몬드 2,000만 캐럿, 니켈 150만 톤 등의 상업적 가치가 큰 다양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현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여전히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농업이 GDP의 약 28%)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관광업 중심의 서비스 산업과 방대한 광물자원이 경제 성장의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10년 10월 총선에서 키크웨테(Kikwete)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차기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2015년까지 특별한 정치적 이슈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잔지바르 독립 문제가 지속적인 사회 불안의 요소로 상존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경제 성장세 지속

- 농업이 GDP의 28%, 서비스업이 GDP의 50%에 육박하는 탄자니아는 관광, 통신, 금융 부문의 서비스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1998~2007년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6.3%를 기록하는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됨.
- 2003~08년 원조자금을 활용한 도로, 항만, 호텔 등의 인프라 개선에 힘입은 서비스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금, 다이아몬드 등을 중심으로 한 광업 부문의 견실한 성장 등에 힘입어 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FDI, 수출 및 관광수입이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6.0%로 하락하였음.
-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7%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국제 유가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도로, 전력 등 인프라 부문의 투자가 해외 원조에 힘입어 활기를 띠고 금 수출이 호조를 보여 6%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제 성장률	7.1	7.4	6.0	7.0	6.3
재정수지 / GDP	-0.9	-2.1	-4.8	-6.4	-6.5
소비자물가상승률	7.0	10.3	12.1	6.2	12.2

자료: IMF 및 EIU.

□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식료품 및 원유의 가격 상승 등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에 12.1%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식료품 수요가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바스켓 조정으로 식료품의 가중치가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2%로 전년보다 크게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는 강수량 부족 현상과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2%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폭 증가

- 재정수지는 정부의 성장·빈곤감축 전략(National Strategy for Growth and Reduction Poverty: NSGRP)에 따라 인프라 확충, 빈곤 감소 프로그램 추진,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 투자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자기조이며, 세수 기반이 열악하여 재정수입의 약 40%를 대외 원조와 양허성 차관으로 충당하고 있음.
- 2007/08년(탄자니아 회계연도: 7.1~6.30)에는 7%대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재정수지 개선 노력으로 적자 폭이 다소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2008/09년에는 세계경기침체 악화에 따른 원조국의 공여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8%로 다시 확대됨.
- 2010/11년에는 재정수지 적자의 보전에 큰 역할을 해온 대외원조가 탄자니아의 권력층 부패, 부진한 구조개혁과 아울러 원조국의 국내 여건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6.5%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인프라 미비로 인한 산업 발전의 제약

- 제조업은 도로, 항만, 전력 등의 인프라가 열악하여, 성장기반이 매우 취약함.
- 농업은 GDP의 28.4%, 노동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나 경작지가 국토의 약 4%에 불과한데다 기후 조건에 따라 작황의 변화가 심하고 소규모 생계농이 대부분이며 관개시설 등의 농업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강수량 등의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정부는 커피, 차, 면화, 담배, 캐슈넛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농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최근에는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나, 수송,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금,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석탄, 니켈 및 탄자나이트(탄자니아에서만 유일하게 생산되는 광물) 등 상업적으로 가치가 큰 광물들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광산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주요 광물의 확인매장량은 금 4,500만 온스, 다이아몬드 2,000만 캐럿, 니켈 150만 톤 등이며, 광물 탐사가 이루어진 지역이 전 국토의 10%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광물자원의 추가적인 매장량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금은 최근 국제 금 가격의 상승세와 맞물려 탄자니아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였음.

다. 정책성과

□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추진

- 탄자니아는 현재 총 연장 10,300Km의 주요 국도 중 약 70%에 달하는 도로의 정비와 3,000Km에 달하는 신규 도로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 도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 중임.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도도마(Dodoma),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아루샤(Arusha) 등 탄자니아 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나, 지방도로는 10% 정도만이 유지 보수되고 있는 실정임.

□ 외국인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 경제 구조 다변화 정책 추진

- 2005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출범한 현 키크웨테(Kikwete)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와 원조 유치를 통해 각종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조업, 광업, 관광업 등을 중점 육성하며 경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는 Tanzania Vision 2025를 수립하여 농업을 현대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원조에 대한 의존성 및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한 국제상품시장 진출의 어려움과 신기술 수용에 대한 취약점을 극복하여 2025년에는 개발수준이 높은 중소득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제2차 성장·빈곤감축 전략(2011~15)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을 우선개발대상산업으로 명시하고 농촌의 소득 증대를 통한 빈곤 감축을 강조하고 있음.
-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여전히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나 유로본드의 발행을 추진하는 등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가능한 자체 조달하려는 자립적 경제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음.

3. 대외거래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지속

- 금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업, 제조업, 통신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재의 수입이 급증하여 상품수지는 적자기조이며 금 생산 외국 기업들의 과실송금 증가로 소득 수지도 적자를 기록하여 경상수지의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7년에 11%, 2008년에 12.9%로 확대되었으나 2009년에는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세계경기 침체로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여 9.1%로 하락하였음.
- 2010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상품수입액이 증가하였으나,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 원조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 금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상품수출액의 증가 등의 요인이 대외수지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축소된 8.3%로 추정됨.
- 2011년에는 고유가 지속으로 원유의 수입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 수출이 확대되고 관광 수입이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7.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외환보유액도 확대

- 2000년대 중반의 대규모 외채 탕감으로 2005년 78억 달러(GDP의 55%)에 달하던 외채규모는 2007년 50억 달러(GDP의 29.8%)로 대폭 감소하였음.
- 외채규모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73억 달러(GDP의 34.3%)에 이어 2010년에는 83억 달러(34.7%)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89억 달러(35.2%)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은 금 및 관광산업에 대한 꾸준한 FDI 유입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7년 29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2009년에 32억 달러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4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1,849	-2,675	-1,934	-1,978	-1,983
경 상 수 지 / G D P	-11.0	-12.9	-9.1	-8.3	-7.8
상 품 수 지	-2,634	-3,434	-2,540	-2,828	-2,867
수 출	2,227	3,579	3,295	4,297	5,238
수 입	4,861	7,012	5,834	7,125	8,106
외 환 보 유 액	2,870	2,847	3,206	3,645	4,192
총 외 채 잔 액	5,008	5,964	7,325	8,257	8,936
총 외 채 잔 액 / GDP	29.8	28.7	34.3	34.7	35.2
D S R	1.5	1.1	3.1	2.6	2.6

자료: IMF, EIU.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자카야 키크웨테(Jakaya Kikwete) 대통령 연임 성공

- 탄자니아는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1964년 잔지바르와 합병하여 탄자니아 연방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초대 대통령이자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니에레레(Nyerere) 대통령에서 현 자카야 키크웨테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집권여당인 혁명당(Chama Cha Mapinduzi:CCM)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

- 2010년 10월의 대선과 총선에서는 지지율이 2005년 선거에 비해 낮아지기는 했으나 키크웨테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여당인 CCM도 승리하였음.
- 2010년 총선에서 제1야당인 민주진보당(Chadema)이 여당의 선거부정을 비난하고 개헌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주도하여 경찰과 무력 충돌이 발생한 바 있으나 크게 이슈화되지는 못하였음.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빈곤율 등으로 인한 국민적 지지도 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Vision 2025'를 수립함으로써 삶의 질과 사회적 복지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차기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2015년까지 특별한 정치적 이슈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잔지바르 분리 독립 움직임 지속

- 탄자니아는 대륙 본토인 탕가니카(Tanganyika)와 과거 오만의 지배를 받아 이슬람 성격이 강한 잔지바르(인구 약 1백만 명)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는 그동안 잔지바르의 내부 문제를 관장하는 자치 정부와 의회를 용인하고 화합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잔지바르에서는 일부 야당 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 독립 운동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2001년에는 잔지바르섬과 펨바(Pemba)섬 일대에서 최대 야당인 시민연합전선(Civic United Front: CUF)의 주도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군경의 유혈진압이 이어지면서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인근 에티오피아 및 케냐로 이동하는 등 독립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겪기도 하였음.
- 이후 탄자니아 원조 공여국들의 압력 등으로 인해 2001년 10월에 양당 간에 평화회담(Muafaka)이 시작되었으나 최근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CUF 내부의 과격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오랫동안 정치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잔지바르 문제는 일단 안정을 되찾았으나 가까운 장래에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잔지바르 근처 해양에서 상업적 개발가능성이 있는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비효율적인 경제 정책으로 인한 높은 빈곤율(빈곤선 이하 생활인구 36%)과 열악한 생활환경 및 정·재계 비리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등 사회 불안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3. 국제관계

□ 주요 서방 원조국과 원만한 관계 유지

- 1960~70년대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하였던 스칸디나비아 국가 및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민지 시절의 종주국이었던 영국 등 서방국가와도 긴밀한 외교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최근에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대 탄자니아 원조 공여국들과도 대외관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들의 원조액은 매년 탄자니아 예산의 40~50%에 상당하는 규모임.

□ 동아프리카공동체를 통한 역내 협력 추진

-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는 1967년 결성되었으나 각국의 주도권 다툼 등으로 1977년에 해체되었다가 2000년에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를 주축으로 재결성되었으며, 2007년 7월에 르완다와 부룬디가 가입하여 총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5년 1월 발효된 동아프리카 관세동맹을 계기로 EAC는 공동시장 형성(2010년), 화폐통합(2012년) 및 궁극적인 정치동맹체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EAC는 2011년 1월, 단일 통화 도입을 위한 공식기구를 발족하는 등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통합 추구에 따른 각국 내 정치적인 갈등 및 국민적인 반발이 우려되는 등 정책의 추진 속도가 다소 늦춰지고 있는 실정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대규모 외채 탕감 경험

- 2001년에는 HIPC Initiative 대상국 중 최초로 Completion Point에 도달하여 양자간 채무(Bilateral Debt)를, 2006년에는 G8 정상회담에서 결의된 MDRI(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프로그램에 따라 IMF, World Bank 및 AfDB의 다자간 채무(Multilateral Debt) 24.3억 달러를 각각 탕감 받음으로써 외채잔액의 대 GDP 비율이 2004년 69%에서 2008년 GDP의 29%로 대폭 하락한 바 있음.
- OECD 회원국 ECA의 대 탄자니아 지원현황(OECD, 2011년 3월말 기준)
 - * 단기: 총 지원잔액 6,600만 달러 (연체금액 없음)
 - * 중장기: 총 지원잔액 5.3억 달러 (연체금액 3백만 달러, 연체율 2.1%)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11. 9.)	D1 (2010. 4.)
OECD	6 (2010. 10.)	6 (2009. 10.)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제한적 중·단기 인수가능
- 영국 ECGD: 단기 인수가능, 제한적인 중기인수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2. 4. 30 (북한과는 1965. 1. 4)

□ 주요협정

○ 경제·과학·기술 협력협정('05), 문화협정('06),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08)

□ 교역규모는 2010년에 전년 대비 124% 증가하여 사상 최대인 177백만 달러 기록

○ 2010년 우리나라의 대 탄자니아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57.4% 증가한 107백만 달러,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536.4% 증가한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 타이어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동피 및 스크랩, 연초류, 커피류, 은 등임.

<표 4> 한·탄자니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77,494	67,835	107,324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등
수 입	9,669	10,838	70,475	동제품, 알루미늄, 기호식품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1년 6월 말 누계, 총 투자 기준): 30건, 718만 달러

○ 2011년 6월말 누계 기준 탄자니아에 대한 총투자금액은 718만 달러로 미미한 편임.

V. 종합 의견

○ 탄자니아는 관광업 중심의 서비스 산업의 빠른 성장과 광물자원의 높은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경제 인프라와 농업 위주의 저개발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며 1인당 GDP가 500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경제적으로는 대외 원조, 광업부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취약점이 있으나, 주요 수출품인 금의 국제가격 강세에 따른 수출 증가와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의 호조로 최근 경제 전반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총외채잔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비중이 35%를 유지하고 있고 D.S.R.도 2%대에 머물러 있어 단기간에 외채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으로는 2005년 출범한 키크웨테(Kikwete) 대통령이 2010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하였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 운용이 지속되고 있으나, 높은 빈곤율 등으로 인한 국민적 지지도 하락과 일부 야당세력을 중심으로 한 잔지바르 분리 독립 운동은 여전히 사회 불안 요소로 남아있음.

조사역 박유정(☎02-3779-5727)
E-mail : yjpark@koreaexim.go.kr